

문화의 시대,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할

- 도시계획은 전통적으로 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그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나, 1980년대 이후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문화산업, 관광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서 도시계획의 역할도 변화
- 오늘날 한국의 도시계획 또한 ‘경제의 문화화(culturalization)’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도시문화전략의 기획과 추진: 도시문화와 도시계획의 결합 도모
 - 근현대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: 도시공간의 역사성 보전과 그 현대적 활용
 - 문화공간의 조성관리: 도시 문화지도 작성 및 운영프로그램 마련
 -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: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생태환경 조성
- ‘문화의 시대’ 도시계획가에게는 도시의 문화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도시공간 속에 구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동시에 요구됨
 - 물리적 틀에서 벗어나 도시의 사회경제적, 문화적 변화에 관심 필요
 - 계획적 수단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재성찰 필요
 - 도시공간의 역사성, 문화성에 대한 감수성 요구
 - 서로 다른 부문과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네트워크로서의 훈련 필요

1. 도전받는 도시계획: 위기와 기회

- 현대도시계획은 20세기 초 산업도시의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공학적 수단으로 등장하였으며, 오늘날까지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함
 - 토지이용규제, 환경규제, 주택공급에 관여하여 산업활동에 따르는 위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산업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
 - 특히,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산업공간의 기능적 배치, 주택의 대량공급 등 주로 경제개발 및 그에 파생하는 수요에 대응함
- 1980년대 이후 선진국 도시에서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문화산업, 관광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서 도시계획의 역할도 변화
 - 문화기능의 부상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도심의 역사문화적 공간의 재생, 시민 친화적 공간 활성화, 도시관광자원의 마케팅·관리 등의 역할이 강조됨
-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계획이 기존의 전통적인 역할과 함께, ‘경제의 문화화(culturalization)’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‘문화의 시대’에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간적 감수성을 가진 계획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며, 특히 문화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함

2. 도시계획과 문화,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관계

- 도시계획과 문화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달해 왔으며 상이한 패러다임을 가진 문화가 도시계획의 역할 및 성격을 규정해 왔음
 - 20세기 초(1900~1910년대) 도시계획은 ‘고급문화(high culture)’를 공간에 구현하는 기법으로 활용됨(예: 캔버라 도시계획, 시카고의 도시미화운동)
 - 1950년대까지 도시계획에서 문화의 의미는 대체로 특정한 문화시설, 즉 공공문화센터, 상업위락시설 등을 특정한 공간에 질서정연하게 배치하는 것을 의미함
 -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대규모 랜드마크적 문화시설을 통해 도시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경향과 도시공동체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계획적 경향이 함께 나타남

[표 1] 도시계획과 문화의 역사적 관계

| 시기 | 패러다임 | 이론가 | 예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900~1910년대 | 예술작품으로서의 도시 | Daniel, Burnham | 파리와 빈의 도시설계, 시카고의 도시미화운동, 캔버라 도시계획 등 |
| 1910~1950년대 | 문화적 조닝 | Harland, Abercrombie | 근린문화센터 등 |
| 1960~1970년대 | 랜드마크 시설 공급 | Robert Moses | 뉴욕 링컨센터,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|
| | 공동체 문화 활성화 | Jane Jacobs | 공동체 문화 개발, 사회계획 |
| 1980~1990년대 |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| Sharon Zukin | 문화산업전략, 문화축제, 문화재생, 지역경제 활성화 |
| 1990~2000년대 | 창조도시 | C.Landry, A.Scott | 예술 및 문화 계획, 도시디자인 |

자료: Freestone, R. and Gibson, C. 2006. "The Cultural Dimension of Urban Planning Strategies: An Historical Perspective".
in Monclus, J. & Guardia, M. 2006. *Culture, Urbanism and Planning*. Ashgate. p23에서 재구성

- 1980년대 이후 문화적 가치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문화경제(culturenomics)의 부상
에 따라 도시계획과 문화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됨
 - 문화의 경쟁력이 도시성장을 좌우한다는 창조도시(creative city), 문화도시(cultural city) 이론 등장
 - 문화산업 활성화,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전략 등장(예: 빌바오, 가나자와)
 - 도시의 문화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계획(cultural planning)의 보편화로 문화공간 조성, 도시마케팅, 도시축제기획 등 도시계획 자체의 문화화 진행

3. 문화의 시대에 생각하는 도시계획의 역할

● 도시문화전략의 기획·추진

- 문화를 도시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도시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
이에 도시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
 - 도시문화는 도시계획과의 결합을 통해 ‘장소성’ 획득 가능
 - 도시의 개발여건, 산업구조 등 계획적 지식을 문화전략수립과정에 투입

- 선진도시들은 문화계획과 공간계획을 결합한 다양한 도시문화전략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

● 런던과 도쿄의 도시문화전략 사례¹⁾

- 런던의 창조문화중심도시 브랜드화: ‘세계문화수도 런던’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(2004)
 - 수월성, 창조성, 접근성, 가치의 4개의 전략적 목표하에 총 12개 과제 추진
 - 창의산업연구소를 설치하여 창조산업에 대한 고품질 정보를 수집·해석하고 국제적 네트워킹 구축

[표 2] ‘세계문화수도 런던’ 브랜드화를 위한 12개 과제

| 전략목표 | 12개 과제 |
|------|--|
| 수월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과 이벤트 제공 • 런던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양하는 문화지원체계 개선 • ‘세계문화수도 런던’ 브랜드 개발, 세계문화도시이자 관광도시로 판촉 |
| 창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창조성은 런던경제의 핵심이자 성공요인 • 교육은 창조성 양성, 고용창출의 핵심적 역할 담당 |
| 접근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런던주민의 권리로서 문화에의 접근성 제고 • 문화는 런던의 모든 공동체에 힘을 주는 수단 • 공공공간의 문화적 가치와 잠재력 개발 • 고품격 문화인프라를 런던 곳곳에 확산 • 런던 개발과 재생을 위한 문화적 활동 장려 |
| 가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구학적, 경제적, 공간적 수요에 적합한 문화제공 • 지역 간 시너지 효과 창출,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구축 |

- 도쿄의 문화기반확충 노력: 도시의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‘도쿄도문화진흥지침 - 창조적인 문화를 낳는 도시’계획 수립(2006)
 - 3개 기본목표 9개 추진시책²⁾ 마련

1) 런던과 도쿄 사례는 나도삼, 2008. 창의문화수도를 위한 서울시의 7대 과제(SDI 정책리포트)를 참조하였음.
 2) 3개 기본목표는 ① 세계가 문화적 매력을 느끼는 도시 도쿄, ② 주민이 문화적 풍요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도시 도쿄, ③ 문화창조의 기반이 충실한 도시 도쿄 등이며, 9개 추진시책은 ① 젊은 신진 예술가 지원, ② 예술문화의 창조 및 확산, ③ 예술문화 분야 인재 육성, ④ 어린이의 예술적 감성 육성, ⑤ 주민의 문화생활촉진, ⑥ 문화의 계승발전, ⑦ 관광산업진흥, 마을만들기 등 연계, ⑧ 도립문화시설의 개혁 및 매력 향상, ⑨ 문화진흥추진체계 정비 등임.

-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‘Tokyo Wonder’계획 추진
-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혼고(本郷), 시부야(澁谷) 등에 예술인 체류공간 조성
- 록본기 힐즈(六本木ヒルズ)의 모리미술관(2000), 국립신미술관(2007), 산토리 미술관(2007)의 아트트라이앵글 조성

● 근현대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

- 도시민의 삶의 흔적이 담긴 산업유산·생활공간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역사성을 보존하는 방안 모색
- 근현대 유희공간 활용의 예로는 폐선이 된 철도역사와 철길을 아트숍, 공원으로 활용(파리 오르세 미술관, 광주 푸른길 등), 부두가 창고를 미술관 및 쇼핑공간으로 활용 [요코하마 아카렌카(赤レンカ), 인천 문화예술공간 등] 을 들 수 있음

● 문화공간의 조성 및 관리

- 도시의 문화지도 작성 및 운영프로그램 마련
 - 문화자원이 밀집한 지역을 문화특화공간으로 지정하여 창조적 문화활동과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및 행정 지원
 - 공공예술전문가,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창조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체제 및 운영체제 구축
- 미술관이나 화랑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던 전시분야를 도시계획과 결합하여 도시 전체에 확산
 - 가로시설물, 도시전광판, 야간조명 등에 공공미술의 개념을 부여하여 도시환경문제 개선

●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

-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생태환경 조성
 - 문화클러스터 조성, 문화지구 지정 등을 통한 문화산업 육성기반 확충
 - 문화산업의 원천인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시민접근성 강화

- 창조계층(creative class)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
 - 창작스튜디오 건립, 거주공간 제공, 세계적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기초예술분야의 인재유치
 -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작업공간 및 놀이공간 조성(예: 뉴욕시는 로우맨해튼을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재건)

4. 도시계획, 어떻게 할 것인가?

● 계획행위의 문화화 필요

- 이상에 언급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가에게는 도시의 문화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도시공간 속에 구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동시에 요구됨
 - 기존의 건조환경을 주요 대상으로 하던 물리적 도시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도시의 사회경제적, 문화적 변화에 관심 필요
 - 공간을 통제하는 계획적 수단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재성찰 필요
 - 도시공간의 역사성, 문화성에 대한 감수성 요구

● 네트워크로서의 계획가

- 오늘날의 계획가는 산업시대와 같이 계획대상과 분리된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와 주민, 경제부문과 문화부문,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연결해주고 합의를 끌어내는 네트워크(networker)로서의 역할이 요구됨
 - 성공적인 도시문화전략의 추진을 위해서 경제학자, 사회학자, 지역예술가 그리고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며, 계획가가 그 매개 역할을 담당해야 함
- 네트워크가 되기 위한 소양, 지식, 리더십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교육프로그램 필요

● 국토연구원 도시연구실 박세훈 책임연구원 (031-380-0220, shpark@krihs.re.kr)